

國際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와 對策

朴 龍 炯*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우리 經濟의 現況 |
| I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 IV.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 |
| 1. 三低 現象 | 1. 對日貿易逆調深化 |
| 가. 달러貨弱勢·엔貨強勢 | 2. 對韓輸入規制와 市場開放壓力 |
| 나. 原油價格下落 | 3. 外債問題 |
| 다. 國際金利下落 | V. 對 策 |
| 2. 保護貿易主義 | |

I. 序 論

우리 경제는 1985年 4/4分期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달러貨弱勢, 原油價格下落, 國際金利下落的 3低 현상이 長期化되면서 經濟運用計劃上的 목표를 훨씬 초과한 物價安定基盤 에서의 高度成長과 輸出增大로 인한 國際收支黑字을 이룩하는 良質의 未曾有의 好況을 맞고 있다. 과거의 高成長, 高物價, 國際收支赤字로 이어지던 高질적인 惡循環에서 벗어나 經濟理論上으론 불가능하다는 高成長, 低物價, 國際收支黑字로 이어지는 良循環에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1986年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新紀元을 이룩한 최고의 해가 되었다.

그러나 3低 현상은 우리 경제의 好材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對日수입을 계속 증가시켜 對日貿易赤字를 가속적으로 深化시키고 반면에 市場開放壓力을 高潮시키고 있는 美國과의 貿易黑字는 더욱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리고 國際貿易環境이 主要 先進國間的 貿易不均衡深化와 그로 인한 保護貿易主義의 膨脹 등으로 계속 악화됨으로써 好況局面을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수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資源貧國이므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85年 총수출 30,283百萬달러의

* 師範大學

69.0%인 20,889百萬달러가 先進國에 偏重되므로 先進國에 대한 수출의 36.6%, 총수출의 25.3%가 輸入規制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輸出主種品目인 纖維類, 신발類, 鐵鋼製品, 電子製品 등이 대부분 先進國에서 輸入規制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3低의 好機를 더 效率的으로 활용해야만, 우리 경제의 累積된 輸入誘發的 産業構造, 對日依存도가 높은 輸入構造로 인한 對日貿易逆調의 深化와 그에 따른 過다한 外債 등과 같은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經濟體質을 강화시켜 再跳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低 현상은 우리 경제만이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競爭國들도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好機를 더욱 잘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적인 要因인 3低 현상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우리 경제는 對外依存經濟로서의 긍정적인 면과 對日依存經濟로서의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하나의 해외적인 要因인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強化는 우리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3低 현상과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強化를 살펴보고, 이런 要因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現況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II. 國際經濟環境의 변화

1. 三低 현상

최근의 우리 경제는 經濟理論上으로는 동시에 이룩할 수 없는 高度成長, 物價安定, 國際收支黑字의 3대 目標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실한 成長은 3低 현상에 기인한 바 크고 3低 현상이 앞으로도 얼마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3低 현상의 背景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달러貨弱勢·엔貨強勢

1979년의 第2次 石油波動 이후 高率의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財政赤字를 매우기 위해 동시에 國際收支赤字를 줄이기 위해, 美國은 政府支出 억제를 目標로 한 財政投融资의 억제정책과 소비 억제와 貯蓄增大를 目的으로 한 高金利政策을 병행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美國內의 高金利는 外國資本을 다량 유입시켜 美國의 인플레이션을 安定시키고 景氣를 회복시킬 수는 있었으나 달러貨의 強勢를 초래하여 美國商品의 輸出競爭力을 弱화시켜 貿易收支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같이 貿易收支問題가 심각하여지자, 1985年 9月 22日 美行政府의 主宰下에 G-5¹⁾(美國,

1) 先進國經濟 규모 全體를 100으로 볼때, 美國의 比重은 45, 日本은 16, 西獨은 8, 프랑스는 6, 英國은 5로써 이들 先進 5國이 先進國經濟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들 國家가 先進國經濟 나아가서는 世界經濟를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日本, 西獨, 프랑스, 英國) 會議를 통해 外換市場에서 各國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貨를 방출하고 대신에 日本 엔貨를 사들임으로 달러貨의 弱勢와 엔貨의 強勢를 합의하였다. 즉 美國은 심각한 貿易赤字를 해소하기 위해 對美貿易黑字가 큰 日本 등의 主要國 通貨에 대한 달러貨의 弱勢를 유도하여 日本 등의 主要國 상품수입을 줄이고 主要國에 美國商品의 수출을 늘일려고 하였다.

G-5 會議에서의 합의에 의한 달러貨의 弱勢, 엔貨의 強勢는 1985년에는 그 效力이 발생되지 않아²⁾, 1985年 美國의 貿易赤字는 前年度 1,233億달러보다 20.4% 늘어난 1,485億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對日貿易赤字는 前年度 368億달러보다 35% 늘어난 497億달러에 달했으며(表1參照) 財政赤字도 2,000億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쌍둥이赤字로 인하여 美國은 債務國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表 1〉 美國과 日本의 貿易收支 推移 (단위: 億달러)

|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上半期 |
|---|--------|-------|-------|-------|-------|--------|--------|-------------|
| 美 | 輸 出 | 2,208 | 2,337 | 2,123 | 2,005 | 2,179 | 2,131 | 1,081 |
| | 輸 入 | 2,570 | 2,734 | 2,549 | 2,699 | 3,412 | 3,616 | 1,920 |
| | 貿易收支 | -362 | -397 | -426 | -694 | -1,233 | -1,485 | -839 |
| 國 | 對日貿易收支 | -122 | -181 | -190 | -217 | -368 | -497 | -287 |
| | 日 | | | | | | | |
| 日 | 輸 出 | 1,298 | 1,520 | 1,388 | 1,469 | 1,701 | 1,756 | 986 |
| | 輸 入 | 1,405 | 1,433 | 1,319 | 1,264 | 1,365 | 1,295 | 646 |
| 本 | 貿易收支 | -107 | 87 | 69 | 205 | 336 | 461 | 340 |

資料: 産業研究院, 「産業經濟情報」

1986年에도 계속 엔貨 價値는 상승하여 달러貨에 대해 G-5합의 前보다 약 40% 정도 平價切上 되었으나(表2參照) 1986年 上半期에는 당초 예상인 美國産業의 競爭力 회복과 日本 輸出産業의 競爭力 弱화로 인한 美國의 貿易赤字 감소와 日本의 貿易黑字 감소와는 반대로 美國의 貿易赤字는 오히려 확대되고 對日貿易赤字도 확대되었다(表1參照).

〈表 2〉 主要國 通貨의 換率 推移

| | 1980 | 1984 | 1985, 9月 | 1985, 12月 | 1986, 6月 | 1986, 8月7日 |
|-----------|--------|--------|----------|-----------|----------|------------|
| 엔 貨/ 달러貨 | 200.30 | 251.10 | 218.30 | 200.60 | 163.95 | 153.75 |
| 마르크貨/달러貨 | 1.9590 | 3.1480 | 2.6699 | 2.4613 | 2.1986 | 2.0677 |
| 프 랑 貨/달러貨 | 4.5160 | 9.5920 | 8.1525 | 7.5610 | 7.0115 | 6.7175 |
| 달러貨/과우드貨 | 2.3850 | 1.1565 | 1.4070 | 1.4450 | 1.5425 | 1.4705 |

註: 期末基準임.

資料: 産業研究院, 「産業經濟情報」

2) 日本 엔貨의 對美 달러換率은 1985年 9月 22日 G-5합의 直前 1달러 對 242엔에서 1985年 12月末에는 1달러 對 200엔으로 21%나 상승하였다.

1986年 12月 19日, 24個 西方 先進工業國들의 모임인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의 年例 經濟展望 報告書에 의하면 1986年 美國은 1,380億달러의 經常收支赤字를 기록할 전망인데 비해 日本은 810 億달러의 黑字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美日間의 거대한 貿易不均衡이 西方 先進工業國의 經濟成長과 物價安定, 雇傭을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美日間의 貿易不均衡 해소를 위 해서는 달러貨 價値는 좀 더 떨어지고 엔貨 價値는 좀 더 올라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엔貨 強勢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면은 輸出增大와 長期的으로 輸入代替促進과 輸入先 多邊化를 통한 經濟成長率의 提高와 地域間의 貿易不均衡 해소로 國際收支를 改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이고, 다른 한 면은 우리 경제의 輸出入構造가 改善되지 못할 경우 對美黑字와 對日赤字의 深化 및 엔貨 표시 借款을 사용하는 기업의 換差損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엔貨의 強勢은 비록 소폭의 오르고 내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3~4年 지속될 전망이다.³⁾

나. 原油價格下落

原油價格은 1973年 第1次 石油波動으로 4배 그리고 1979年 第2次 石油波動으로 다시 2.5배 도합 11배 상승하여 사우디產 輕質油는 公定價格이 3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油價 상승은 非OPEC 產油國들의 原油增産을 자극시켜 세계 原油供給中 OPEC의 供給 比重을 1979年 58.8%에서 1985年 37.8 %로 오히려 떨어뜨려 세계 原油市場에서의 OPEC의 영향력을 弱화시켰다(表3參照). 이에 1985年 12月 OPEC가 세계 原油市場에서의 主導權을 행사하기 위해 종래의 엄격한 產油量 統制를 통한 價格 維持政策에서 市場占有率 固守政策으로 轉換하여 產油量을 늘림으로 OPEC와 非OPEC 產油國間的 油價競爭이 유발되었다.

〈表 3〉 自由世界の 原油需給推移 (단위 : 百萬배럴/日, %)

| | 1979 | 1982 | 1985 | 1979~1985 年平均增減率 |
|-------|--------------|--------------|--------------|---------------------|
| 供 給 | 53.7 (100.0) | 44.9 (100.0) | 45.5 (100.0) | -2.7 |
| 非OPEC | 22.1 (41.2) | 25.1 (55.9) | 28.3 (62.2) | 4.1 |
| OPEC | 31.6 (58.8) | 19.8 (44.1) | 17.2 (37.8) | -10.1 |
| 需 要 | 52.4(100.0) | 46.0(100.0) | 45.6(100.0) | -2.3 |
| 先進國 | 41.6 (79.4) | 34.6 (75.2) | 34.0 (74.6) | -3.4 |
| 開途國 | 10.8 (20.6) | 11.4 (24.8) | 11.6 (25.4) | 1.2 |
| 在庫變動 | 1.3 | -1.1 | -0.1 | |

資 料 : OECD

3) 韓基春, (1986)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機械工業 貿易收支改善方案", 「機械工業」, 韓國機械工業振興會, 10, pp.44~45.

또한 原油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原油에 대한 自由世界의 수요도 1979~1985年 期間中 年平均 2.3%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油價의 下落을 부채질하였다(表3參照).

油價下落은 原油輸入 費用을 절감시켜 原油를 原料로 사용하는 關係產品에 直間接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의 物價를 下落시키는 有利한 효과를 가져오며, 반면에 油價下落으로 인하여 中東產油國의 收入이 줄어들어 建設 프로젝트의 축소조정, 工事代金の 未支給, 우리 商品의 輸入減少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⁴⁾(表4參照).

〈表 4〉 中東地域 輸出 및 建設受注 (單位: 百萬달러, %)

| | 海外建設受注 | 中東地域建設受注 | 海外建設受入 | 中東地域輸出 |
|------|---------------|-------------|--------|--------|
| 1983 | 10,079(100.0) | 8,845(87.8) | 1,890 | 3,576 |
| 1984 | 8,205(100.0) | 7,373(89.9) | 1,710 | 3,202 |
| 1985 | 4,650(100.0) | 4,140(89.0) | 974 | 2,420 |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OPEC 회원국들이 합의대로 1986年末까지 減産을 실시하면 油價는 그동안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石油在庫의 累積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冬節期 需要增大에 힘입어 1986年 10月末 현재 배럴당 14~15달러 水準에서 17~18달러 水準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向後 2~3年間の 油價도 작은 騰落을 보이는 가운데 배럴당 15~18달러의 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다. 國際金利下落

1979年의 第2次 石油波動 이후 油價引上에 따른 物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84년까지 國際적으로 高金利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世界經濟는 不況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5年 下半期부터 油價가 조금씩 下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美國이 景氣鈍化, 緊縮緩和基調의 金融政策 등을 실시하면서⁶⁾, 그리고 美國의 貿易收支赤字의 累積으로 인한 달러貨弱勢에 대한 豫상으로 달러貨의 수요가 크게 감소되어 美國의 金利가 下落하면서, 國際金利도 下落하여 지금 國際低金利時代를 맞고 있는 것이다(表 5參照).

4) 韓國開發研究院, (1986. 3.) 「國際經濟環境의 變化와 國際經濟의 運用方向」.

5) 産業研究院, (1986. 10. 25) 「産業經濟情報」.

6) 美國의 消費者物價指數를 基準으로 한 인플레이션率は 1979年 第2次 石油波動 이후 1979, 1980, 1981年에 各各 11.2%, 13.5%, 10.4%로써 높았으나, 1982~85年 동안에는 年平均 4.3%의 인플레이션률을 기록하여 物價安定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美國 정부는 景氣浮揚을 위해 金融緩和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表 5>

主要 國際金利 推利¹⁾

(單位: 年利, %)

| | 公 定 割 引 率 | | | 프 라 임 레 이 트 | | | 유 로 커 런 시 금 리 ²⁾ | | |
|--------|-----------|------|------|-------------|------|------|-----------------------------|------|-------|
| | 美 國 | 日 本 | 西 獨 | 美 國 | 日 本 | 西 獨 | 美 國 | 日 本 | 西 獨 |
| 1980 | 13.00 | 7.20 | 7.50 | 21.00 | 7.50 | 9.00 | 18.13 | 9.88 | 9.94 |
| 1981 | 12.00 | 5.50 | 7.50 | 15.70 | 6.00 | 9.00 | 14.00 | 6.75 | 10.63 |
| 1982 | 8.50 | 5.50 | 5.00 | 11.50 | 6.00 | 6.00 | 9.25 | 6.88 | 6.00 |
| 1983 | 8.50 | 5.00 | 4.00 | 11.00 | 5.50 | 5.50 | 10.31 | 6.44 | 6.00 |
| 1984 | 8.00 | 5.00 | 4.50 | 10.70 | 5.50 | 5.50 | 8.75 | 6.31 | 5.63 |
| 1985 | 7.50 | 5.00 | 4.00 | 9.50 | 5.50 | 5.50 | 8.00 | 6.75 | 4.88 |
| 1986.3 | 7.00 | 4.00 | 3.50 | 9.00 | 4.50 | 5.50 | 7.56 | 5.44 | 4.56 |
| 1986.6 | 6.50 | 3.50 | 3.50 | 8.50 | 4.12 | 5.50 | 6.88 | 4.75 | 4.62 |
| 1986.9 | 5.50 | 3.50 | 3.50 | 7.50 | 4.12 | 5.50 | 6.12 | 5.00 | 4.62 |
| 12.3 | 5.50 | 3.00 | 3.50 | 7.50 | 4.12 | 5.50 | 6.19 | 4.62 | 4.88 |

註 :1) 期末基準임.

2) 3個月物 期準임.

資料 : 産業研究院, 「産業經濟情報」

國際金利下落的 또 하나의 背景은 그동안의 國際高金利로 인한 開發途上國의 累積된 外債의 과중한 利子負擔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들 수 있다.⁷⁾

이와 같은 國際金利下落은 달러貨弱勢, 油價下落과 더불어 世界景氣를 활성화시켜 우리 경제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고, 外債에 대한 支給利子を 감소시켜 國際收支를 改善시키고 더 나아가 外債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利子負擔의 경감으로 기업의 投資促進과 物價安定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1986年中 큰 폭으로 下落한 國際金利는 1987年에도 主要國 通貨當局들이 景氣回復勢 지연에 따라 金融緩和基調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폭 下落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2. 保護貿易主義

1950年代 이후 世界貿易環境의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1950년, 1960年代의 自由貿易趨勢에서 1973年 第1次 石油波動 이후 1970年代 중반부터는 各國의 貿易不均衡과 資源民族主義로 인한 保護貿易主

7) 油價 暴落으로 産油債務國의 外債狀況은 매우 심각하여 최근에도 멕시코는 西方 債權國에 金利 水準을 6%까지 낮추어 줄 것을, 아르헨티나도 適用金利를 5.6%까지 내려줄 것을 주장하는 등 閉途債務國들이 집단적으로 金利引下를 요청하고 있다.

8) 産業研究院, (1986.12. 5) 「産業經濟情報」.

義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980年代에 들어서는 달러貨의 強勢에 따른 美國商品의 價格競爭力 弱화로 貿易收支의 赤字가 확대되고 있는 美國을 中心으로 한 先進國들의 貿易不均衡⁹⁾ 때문에 新保護貿易主義가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의 新保護貿易主義의 貿易政策은 종래의 소극적인 保護貿易主義의 手段인 輸入規制 뿐만 아니라 自國의 輸出增大를 위하여 적극적인 貿易相互主義에 입각한 交易相對國에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分野의 市場開放壓力 등 그 手段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交易對象國인 美國은 輸出不振과 輸入急增으로 인한 貿易赤字의 확대로 保護貿易主義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달러貨의 強勢로 美國의 貿易收支赤字는 계속 확대되었고 1985년에는 1,485億달러에 이르렀고, 1986년에도 달러貨의 弱勢에 따른 交易條件의 改善에도 불구하고 1,600億달러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先進國 특히 유럽 先進國들은 높은 失業率(表6參照) 인한 自國들의 經濟難 타결에 급급하여 수입의 문턱을 높이는 실정이다.

〈表 6〉 OECD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및 展望 (單位: %, 百萬名)

| |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
| 失 業 率 | 英 國 | 11.6 | 11.7 | 11.9 | 12.0 | 11.8 |
| | 이탈리아 | 9.8 | 10.3 | 10.6 | 11.0 | 11.5 |
| | 프 랑 스 | 8.4 | 9.9 | 10.2 | 10.3 | 10.3 |
| | 西 獨 | 8.2 | 8.2 | 8.3 | 8.0 | 7.3 |
| | OECD全體 | 8.8 | 8.4 | 8.3 | 8.3 | 8.3 |
| 失 業 者 數 | 北 美 | 12.1 | 9.9 | 9.6 | 9.5 | 9.3 |
| | OECD유럽 | 17.3 | 18.4 | 18.9 | 19.0 | 19.0 |
| | OECD全體 | 31.8 | 30.6 | 30.8 | 31.0 | 31.0 |

資料: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86. 9.

III. 우리 經濟의 現況

우리 경제는 1980年의 마이너스 成長에서 벗어나 1985년까지 成長을 지속하여 競爭國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다. 海外依存度가 매우 높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景氣沈滯가 매우 심해, 홍콩 경제는 1984年 9.6% 成長에서 1985년에는 0.8%로 成長率이 急落하였고 싱가포르 경제

9) 美國은 1985年 對日, 對EC貿易에서 各各 497億달러와 225億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EC는 對日貿易에서 130億달러의 赤字를 기록하는 등 主要國間的 貿易不均衡이 深化되고 있다.

또한 1984年 8.2% 成長에서 1985년에는 -1.8%라는 1965年 獨立 이후 가장 낮은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우리 경제는 1984年 8.4%에서 1985년에는 5.1%에 떨어졌으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극심한 景氣沈滯는 겪지 않았다(表7參照).

〈表 7〉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實質 經濟成長率 推移 (單位: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韓 國 | 6.6 | 5.4 | 11.9 | 8.4 | 5.1 |
| 臺 灣 | 5.7 | 3.3 | 7.9 | 10.5 | 4.7 |
| 홍 콩 | 10.4 | 2.4 | 5.1 | 9.6 | 0.8 |
| 싱 가 포 르 | 9.9 | 6.3 | 7.9 | 8.2 | -1.8 |

註: 韓國과 臺灣은 GNP, 홍콩과 싱가포르는 GDP 成長率임.

資料: 韓國銀行, 「主要國의 經濟指標」

그런데 1986年 들어서 우리 경제는 제1分期의 成長率이 9.6%이었던 것이 제2分期엔 12.0%, 제3分期에는 14.1%로 成長이 가속화 되었다. 그래서 1986年 1~3分期中 12.0%의 높은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都賣物價 上昇率은 -2.6%, 國際收支는 32億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¹⁰⁾

과거에도 우리 경제는 1966年 12.7%, 1968年 11.3%, 1969年 13.8%, 1973年 14.1%, 1976年 14.1%, 1977年 12.7%의 實質成長率을 기록하면서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雇傭과 所得增大을 위한 高度成長은 通貨膨脹과 소비증가로 인한 높은 物價上昇과 수입증가의 유발로 인한 國際收支赤字를 수반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의 高度成長은 量的, 質的인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지금의 高度成長은 內容面에서도 1986年 제3分期中 23.7% 증가를 보인 輸出比重이 높은 重化學工業部門의 先導로 製造業部門이 17.9%의 증가를 보여 經濟成長을 主導하였고 특히 그 中에서도 175.5%의 伸張率을 보인 電氣·電子機器, 91.7%의 事務用機器, 86.2%의 自動車 등과 같은 機械類가 成長을 主導하였고, 支出面에서는 22.8%의 機械設備投資 증가로 總固定投資가 13.5% 증가한 반면에 정부·민간의 最終消費支出은 6.5% 증가에 그친 사실로 보아 매우 건실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증가의 相對的 鈍化性向은 1986年の 國內貯蓄率을 30% 이상으로 提高시켜 사상 처음으로 國內貯蓄率이 資本增加率을 앞질러 投資自立을 가능하게 하였다. 國內貯蓄率이 總投資率을 앞지르게 됨으로써 이제부터는 外資導入 없이도 投資財源을 國內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自立經濟의 확고한

10) 1981년부터 安定된 物價는 1986年 10月末 현재 都賣物價가 前年末에 비해 3.7%가 下落되었고, 消費者物價는 1.4% 오르는 安定勢를 보였으며, 國際收支는 10月末 현재 3,263百萬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投資하고 남은 부분은 外債節減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低消費, 高貯蓄, 高投資의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國際收支黑字를 定着시킬 수 있고 外債問題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986年 1~3分期中 25%의 伸張勢를 보인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품목별 수출은 纖維類, 電子製品, 機械類, 신발類 등 主要品目이 계속 好調를 보이고 있으며 地域別로도 美國, 유럽 등에 대한 수출 伸張勢가 지속되고 있다(表8參照). 이에 따라 電子, 纖維, 機械, 신발, 自動車 등 主要 輸出業種의 工場稼動率은 90% 선을 넘는 등 國內景氣가 유례없는 好況局面을 맞고 있다.

〈表 8〉 品目別, 地域別 輸出實績(1986年 1~10月) (單位: 百萬달러, %)

| 品目別 | 輸出額 | 伸張率 ¹⁾ | 地域別 | 輸出額 | 伸張率 |
|------|-------|-------------------|-----|--------|-------|
| 纖維類 | 6,755 | 24.5 | 美國 | 11,493 | 32.1 |
| 電子製品 | 3,350 | 40.1 | 유럽 | 4,611 | 40.4 |
| 鐵鋼製品 | 2,667 | 8.2 | 日本 | 4,343 | 17.1 |
| 신발類 | 1,674 | 37.1 | 캐나다 | 1,035 | 7.1 |
| 機械類 | 1,535 | 43.0 | 사우디 | 721 | -10.8 |

註: 1) 前年同期 對比임

資料: 經濟企劃院.

우리 경제의 成長趨勢는 先進國과 競爭國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水準이다. 先進國인 美國의 經濟成長率은 지난 3分期中 2.4%, 日本과 西獨도 지난 2分期中 各各 3.6%와 2.0% 成長에 그쳤으며 싱가포르는 지난 2分期 이후 마이너스 成長에서 겨우 벗어나 3分期中 3.8% 成長에 그쳤으며 臺灣의 經濟成長率은 지난 3分期中 9.4%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14.1%에는 크게 못 미치는 水準이다.

그리고 國際收支黑字幅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總外債 규모는 처음으로 감소하여, 1986年 10月末 현재 1985年末 467億달러보다 12億달러 감소한 455億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건실한 高度成長은 정부의 安定化政策, 投資促進政策, 技術開發政策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3低 현상이란 對外與件의 결정적 작용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高度成長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수출증가勢의 가속화는 달러貨弱勢·엔貨強勢에 의한 價格競爭力의 강화가 큰 動因이었으며, 國際收支를 改善시킨 수입증가勢의 鈍化는 油價下落으로 인한 原油代金の 감소와 國際金利下落으로 인한 外債利子負擔 감소가 큰 要因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油價下落으로 1986年 10月까지 原油輸入額은 22億달러로서 前年 同期間의 39億달러보다 17億달러가 줄었으며, 國際金利의 前年對比 1% 포인트 下落은 1985年 현재 467億달러에 달하고 있는 外債中 약 67%가 變動金利附 外債인 관계로 外債利子負擔을 年間 3億달러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國際環境이 3低 현상을 꺾어 水準에서 反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3低의

효과는 점차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3~4年間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는 高度成長의 그늘에 가리어진 問題들을 해결하여 3低현상의 효과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成長과 경제의 活性化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지금이 바로 貿易黑字內에 散在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對日貿易逆調의 深化와 對美貿易黑字의 확대에 따른 韓美·韓日間の 무역마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好機라고 하겠다.

IV.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

1986年 1~10月까지 수출은 3低 현상에 힘입어 前年同期 對比 19.7%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6% 증가에 그쳐 貿易收支는 30億달러의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年末까지의 수출은 당초 목표인 335億달러를 넘어 347億달러를 기록하고 貿易收支는 40億달러 이상의 黑字를 기록할 전망이다.

用途別 輸入增加率은 金額基準으로 同期間中 原油는 前年同期對比 43.6%가 줄고, 內需用 資本財 수입은 49.6%가 증가하고 輸出用 資本財 수입은 5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表9參照).

〈表 9〉 用途別 輸入實績 (單位: 百萬달러, %)

| | | 1985年 1~10月 | 1986年 1~10月 | 增 減 率 |
|-------------|---------------------|-------------|-------------|-------|
| 內 需 用 | 原 油 | 3,912 | 2,207 | -43.6 |
| | 資 本 財 | 4,078 | 6,100 | 49.6 |
| | 消 費 財 | 1,688 | 1,800 | 6.6 |
| | 小 計 | 14,299 | 15,396 | 7.7 |
| 輸 出 用 | 原 資 材 | 5,670 | 6,391 | 12.7 |
| | 資 本 財 ¹⁾ | 2,113 | 3,229 | 52.8 |
| | 小 計 | 10,029 | 10,402 | 3.7 |

註: 1) 般舶 제외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國別 輸出入現況을 보면, 恩貨強勢로 同期間中 美國에 대한 수출이 前年 同期對比 32.1%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2.4%의 증가에 그쳐 對美貿易收支는 黑字가 격증되고 있으며 반면에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은 恩貨強勢에도 불구하고 46.9%나 증가하여 17.1%의 증가를 보인 對日수출을 크게 앞질러 對日貿易逆調는 더욱 深化되고 있다. 그 결과 1986年 10月末 현재 對日貿易赤字는 45億달러, 對美貿易黑字는 59億달러로서 흡사 美國과의 交易으로부터 얻은 큰 몫을 그대로 日本에게 넘겨주고 있는 형편이다 (表10參照).

〈表 10〉

主要國別 輸出入實績(1986年 1~10月)

(單位: 百萬달러, %)

| | 輸 出 | 增 減 率 | 輸 入 | 增 減 率 | 輸出入差(수출-수입) |
|-----|--------|-------|-------|-------|-------------|
| 美 國 | 11,493 | 32.1 | 5,556 | 2.4 | 5,937 |
| 歐 洲 | 4,611 | 40.4 | 3,596 | 13.1 | 1,015 |
| 日 本 | 4,343 | 17.1 | 8,882 | 46.9 | -4,539 |

註: 통관기준의 前年同期 對比임.

資料: 經濟企劃院

즉 國際收支改善을 內容面에서 살펴볼 때 우리 경제에는 對日貿易逆調의 深化와 對美貿易黑字의 급속한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內在되어 있다. 對美貿易黑字가 계속 확대되는 趨勢를 보이자 美國은 輸入規制와 더욱 강력한 市場開放壓力과 元貨平價切上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黑字基調위에 서 있다고는 하나 油價와 國際金利가 상승하고 달러貨의 弱勢가 反轉된다면 그리고 元貨平價切上이 강행된다면, 黑字基調는 쉽게 뒤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國際收支黑字가 40億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우리 경제의 큰 짐인 累積된 外債를 管理함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外債管理 또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큰 當面課題라 하겠다.

1. 對日貿易逆調深化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對日貿易赤字는 눈덩이같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65年 韓日國交 정상화 이후 20年동안 累積된 對日貿易赤字는 1985年末 현재 무려 329億달러에 달해, 同期間中 우리나라의 貿易赤字總額 385億달러의 85.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貿易赤字의 대부분이 日本으로부터 緣由된 것임을 알 수 있다(表11參照).

그리고 우리 경제가 外債를 많이 도입하던 시기에 對日貿易赤字가 많이 늘어났고 1985年까지의 對日貿易赤字가 總外債의 70% 水準을 넘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對日貿易赤字가 外債 累積의 主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5年 한 해동안도 對日貿易赤字가 30億달러를 넘어 全體貿易赤字의 3.5배를 넘었으며 貿易黑字를 기록한 1986年에도 1~10月까지 元貨強勢에도 불구하고 對日貿易赤字는 45億달러를 기록하였고 年末까지는 前年의 두배 정도인 54億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對日貿易逆調의 深化 原因은 첫째, 우리나라의 對日수출 商品構造가 주로 1次產品을 中心으로 취약한 반면에 對日수입은 機械類와 原資材 등을 中心으로 慢性的인 의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機械類의 對日貿易赤字가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5年 機械類의 對日貿易赤字는 全體對日貿易赤字 30億달러보다 2億달러가 더 많은 32億달러를 기록하였다. 部門別로는 一般機械部門이 18億달러, 電氣機器部門이 12億달러, 輸送機器部門이 1億달러, 精密機器部門이

〈表 11〉

對日輸出入實績

(單位:百萬달러, %)

| 年 度 | 輸 出 | 輸 入 | 對日收支 | 全體收支 | 全體赤字中比率 | 逆調比率 |
|---------|--------|--------|---------|---------|---------|-------|
| 1966~77 | 9,153 | 18,716 | -9,563 | -14,868 | 64.3 | 1:2.0 |
| 1978 | 2,627 | 5,981 | -3,354 | -2,261 | 148.3 | 1:2.3 |
| 1979 | 3,353 | 6,657 | -3,304 | -5,283 | 62.5 | 1:2.0 |
| 1980 | 3,039 | 5,858 | -2,819 | -4,787 | 58.9 | 1:1.9 |
| 1981 | 3,444 | 6,374 | -2,930 | -4,878 | 60.1 | 1:1.9 |
| 1982 | 3,314 | 5,305 | -1,991 | -2,397 | 83.1 | 1:1.6 |
| 1983 | 3,358 | 6,238 | -2,880 | -1,747 | 164.9 | 1:1.9 |
| 1984 | 4,602 | 7,640 | -3,038 | -1,387 | 219.0 | 1:1.7 |
| 1985 | 4,543 | 7,560 | -3,017 | -853 | 353.7 | 1:1.7 |
| 계 | 37,433 | 70,328 | -32,895 | -38,461 | 85.5 | 1:1.9 |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1億달러의 對日貿易赤字를 기록하였다(表12參照).

둘째, 日本市場이 우리 상품에 대해 높은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을 差別關稅制度和 通關節次까지 동원한 非關稅障壁으로 規制하고 있다. 한 例로 日本의 平均關稅率이 3% 水準인데도 우리나라의 輸出主宗品目인 스웨터·綿製品 등에는 16.8%, 메리야스에는 11.2%로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세째는 수입하는데 日本이 地理的으로 가깝고, 言語·商去來慣習上的의 편리함 등 때문이다.

그러나 對日貿易赤字의 累增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라하겠다. 그동안의 工業化過程이 특히 機械工業의 경우 주로 勞動集約的인 부품만 國産化하고 技術集約的인 部品은 日本에서 수입하여 組立·製品化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對日수입은 對日수출의 배 정도로

〈表 12〉

機械類의 對日輸出入 實績(1985年)

(單位: 億달러)

| | 輸 出 | 輸 入 | 收 支 | 對日輸出 | 對日輸入 | 對日收支 |
|---------|-----|-----|-----|------|------|------|
| 全 商 品 | 303 | 311 | -8 | 45 | 75 | -30 |
| 機 械 類 | 129 | 115 | 14 | 9 | 41 | -32 |
| 一 般 機 械 | 20 | 36 | -16 | 1 | 19 | -18 |
| 電 氣 機 器 | 43 | 34 | 9 | 4 | 16 | -12 |
| 輸 送 機 器 | 63 | 41 | 22 | 3 | 4 | -1 |
| 精 密 機 器 | 3 | 4 | -1 | 1 | 2 | -1 |

資料: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커졌다. 1986년에 들어 3低 현상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자 對日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生産構造가 對日依存의 입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隣接國과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日本 대장성 報告에 의하면, 1986年 1~9月까지 우리나라가 4,016百萬달러의 對日貿易赤字를 기록한 반면에 臺灣은 2,198百萬달러, 싱가포르는 2,263百萬달러, 中共은 2,975百萬달러의 對日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홍콩만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4,440百萬달러이나 그 增加率은 前年同期對比 3.6% 증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臺灣은 前年同期對比 79.9%, 싱가포르는 36.8%가 증가하였고, 中共은 33.3%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무려 95.5%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對日依存의 體質로서 固定化된 것은 지난 20年동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對日수입을 억제시킬 적극적인 制度的 장치가 꼭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2. 對韓輸入規制와 市場開放壓力

우리나라는 1985年末 현재 美國, 日本, EC 등 先進 19個國으로부터 207個 品目에 대하여 輸入規制를 받고 있으며 이들 品目の 수출은 7,649百萬달러로서 이들 先進國에 대한 수출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新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年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 品目數가 1984年의 274個 品目보다 67個가 적은 207個 品目으로 줄어든 것은 美國의 對日市場開放 要求에 따라 日本이 그 조치로 規制品目을 조정하였기 때문이다(表13參照).

〈表 13〉 先進國의 對韓輸入 規制 現況 (單位: 百萬달러, %)

| 年 度 | 品目數 ¹⁾ | 輸入規制品目的 輸 出 實 績 (A) | 對先進國 ²⁾ 輸 出 (B) | 總輸出 (C) | A/B | B/C | A/C |
|------|-------------------|------------------------|-------------------------------|------------|------|------|------|
| 1982 | 278 | 6,023 | 14,036 | 21,853 | 42.9 | 64.2 | 27.6 |
| 1983 | 283 | 6,490 | 16,270 | 24,445 | 39.9 | 66.6 | 26.5 |
| 1984 | 274 | 8,349 | 20,255 | 29,245 | 41.2 | 69.3 | 28.5 |
| 1985 | 207 | 7,649 | 20,889 | 30,283 | 36.6 | 69.0 | 25.3 |

註: 1) 輸入規制品目數는 CCCN 4단위 기준임.

2) 美國, 캐나다, 日本,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EC10개국임.

資料: 韓國貿易協會

對韓輸入規制 內容의 主要 특징은 規制對象이 纖維類 등의 勞動集約的인 제품에서 鐵鋼, 電子, 自動車 등의 重化學工業製品과 반도체 등의 尖端産業製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輸入規制

方法에서도 종전의 보편적인 量的規制方法과 더불어 反덤핑關稅¹¹⁾와 相計關稅¹²⁾등 價格規制方法이 증가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5年末 현재 先進 19個國으로부터의 對韓輸入規制形態는 量的規制가 54件으로 제일 많고, 反덤핑關稅 등 價格規制가 32件, 行政措置가 13件 등이다(表14 參照). 그리고 輸入規制 措置의 發動도 다분히 恣意的, 意圖的이라는 점이다. 그 例로서 1985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提訴件數인 36件中 16件이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 무혐의 판정율이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14〉 先進國의 形態別 對韓輸入規制 現況 (單位: 件)

| 規 制 形 態 | 1 9 8 3 | 1 9 8 4 | 1 9 8 5 |
|-----------------|---------|---------|---------|
| 量 的 規 制 | 58 | 58 | 54 |
| 價 格 規 制 | 23 | 30 | 32 |
| 行 政 規 制 | 24 | 24 | 13 |
| 不 公 政 去 來 等 其 他 | - | 1 | 1 |
| 合 計 | 105 | 113 | 100 |

資料: 韓國貿易協會

한편 先進國別 對韓輸入規制 現況을 살펴보면, 1983, 1984年 日本에 대한 輸入規制下의 輸出比重은 48.7%, 46.5%로 가장 높았으나 1985년에는 美國에 대한 輸入規制下의 輸出比重이 4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對뉴질랜드의 1985年 輸出額이 38百萬달러로 적기는 하지만, 輸出全量이 輸入規制되어 輸入規制下의 輸出比重이 계속 100%로 나타나고 있다(表15參照).

〈表 15〉 先進國別 輸入規制下의 輸出比重 (單位: %)

| | 美 國 | 캐나다 | 日 本 | 호 주 | EC10개국 | 뉴질랜드 | 19개先進國 |
|------|------|------|------|------|--------|-------|--------|
| 1982 | 64.1 | 63.3 | 51.1 | 36.6 | 34.6 | 100.0 | 42.9 |
| 1983 | 42.5 | 42.9 | 48.7 | 34.8 | 28.2 | 100.0 | 39.9 |
| 1984 | 44.5 | 37.8 | 46.5 | 41.2 | 29.6 | 100.0 | 41.2 |
| 1985 | 43.3 | 31.1 | 32.0 | 34.7 | 29.5 | 100.0 | 36.6 |

資料: 韓國貿易協會

- 11) 反덤핑關稅(anti-dumping duties)는 外國商品의 수입가격이 國內競爭産業에 피해를 줄 정도로 부당하게 싸고 그것이 덤핑에 의한 것으로 판정받는 경우에 外國의 덤핑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關稅이다.
- 12)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ies)는 外國이 상품수출에 있어 直·間接으로 부여한 補助金과 獎勵金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關稅이다.

品目別 對韓輸入規制 現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輸出主宗品目인 纖維類, 鐵鋼製品, 電子製品, 신발類 등이 모든 先進國들로부터 輸入規制를 받고 있고 실정이다(表16參照). 이 외에도 絹織物, 타이어튜브, 앨범, 핸드백, 金屬製洋食器, 도자기, 水産物 등이 輸入規制를 받고 있다.

〈表 16〉 先進國의 品目別 對韓輸入規制 現況 (單位 : 百萬달러, %)

| 品目 | 1983 | | 1984 | | 1985 | |
|------|--------|-------------|--------|-------------|--------|-------------|
| | 總輸出 | 被規制下の輸出 | 總輸出 | 被規制下の輸出 | 總輸出 | 被規制下の輸出 |
| 纖維類 | 5,298 | 3,131(59.1) | 6,176 | 3,971(64.3) | 6,171 | 3,984(64.6) |
| 鐵鋼製品 | 2,969 | 1,401(47.2) | 3,154 | 1,492(47.3) | 3,466 | 938(27.1) |
| 電子製品 | 2,921 | 583(20.0) | 3,842 | 673(17.5) | 3,512 | 604(17.2) |
| 신발類 | 1,270 | 1,115(87.8) | 1,398 | 1,192(85.2) | 1,571 | 1,375(87.6) |
| 全製品 | 22,445 | 6,490(26.5) | 29,245 | 8,349(28.5) | 30,283 | 7,649(25.3) |

資料 : 韓國貿易協會

19個 先進國中에서도 우리나라의 최대 交易國이며, 최대 貿易黑字國인 美國과는 貿易收支가 대체로 均衡을 이루던 1980年代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美國에 纖維, 신발 등의 輕工業製品과 低技術의 重化學工業製品을 수출하고 美國은 우리나라에 農産物, 原資材 및 高度技術商品을 수출하면서, 相互補完의 貿易構造를 유지해 왔으나, 이러한 相互補完의 貿易構造는 1983年 이후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貿易構造가 自動車, 컬러TV, VTR, 소형컴퓨터 등의 수출로 高度化되면서 美國의 主宗産業과의 競争을 통해 對美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은 1983年 이후 날로 확대되고 있는 對韓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해 輸入規制를 강화시키는 물론 貿易相互主義에 입각한 市場開放壓력과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原貨의 平價切上壓력까지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의 對韓輸入規制 現況은 1985年末 현재 우리나라의 輸出主宗品目들이 대부분 輸入規制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多者間纖維協定(MFA III)에 의해 纖維類가, 政府間協定에 의해 鐵鋼製品이, 反덤핑關稅의 부과에 의해 컬러TV, 앨범, 자전거타이어 등이 輸入規制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對美輸出額 10,745百萬달러 가운데 43.3%인 4,656百萬달러가 被規制下에 수출되었다.

對韓市場開放 요구는 1970年代 중반 이후 점차 진행되어, 1980年代 이후 美國의 關心品目에 대하여 수입확대와 市場開放 요구를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1985年 한 해동안 美議會에 제출된 通商關聯法案은 무려 565件으로, 이런 議會의 움직임에 대해 레이건행정부는 通商政策의 主導權을 회수하기 위하여 1985年 8月 公正貿易의 추구, 貿易相互主義의 강화, 서비스 交易의 강조, 對外協商權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新通商政策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公正貿易 추구를 내세워 通商關稅法 301條¹³⁾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金融, 保險, 영화, 광고 등의 서비스分野 開放과 著作權, 商標權, 物質特許權,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回路設計 등 5個 分野의 知的所有權 保護까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美國은 서비스分野 市場開放과 知的所有權의 保護에 대한 壓力으로서 韓國產 수입상품에 無關稅惠澤을 주는 一般特惠關稅(GSP)적용범위의 축소와 通商關稅法301條의 적용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美通商代表部(USTR)는 1986年 10月 對韓GSP 供與品目中 63個 品目에 대해 GSP惠澤을 정지하고¹⁴⁾, 10個 品目에 대해 새로 惠澤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GSP 적용 品目이 줄어들 경우, 1987年 7月 이후 GSP受惠 品目の 對美輸出額은 年間 1,080百萬달러에 달해 1985年의 GSP受惠 品目の 對美輸出額 1,655百萬달러보다 3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GSP 외에도, 纖維類의 경우는 1986年 8月 韓美間纖維協定에 의해 年間 輸出增加率을 0.825%로 사실상 凍結시켜 버렸다.

이 외에도 美國은 交易相對國의 換率調整까지도 주요 協商對象으로 삼고 있다. 1985年 9月 G-5 합의 이후 달러貨의 價値는 크게 下落하였으나 美國의 貿易赤字는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美國은 그 원인을 아직도 달러貨의 過大評價로 인식하고 交易相對國 通貨의 切上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先進國中 日本, 西獨 등 對美黑字國에 대해서는 추가 切上을 요구하고, 엔貨와 마르크貨의 높은 平價切上으로 美國이 日本과 西獨 등으로부터 얻은 市場을 우리나라, 臺灣 등의 新興工業國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와 臺灣 등에 대해서도 平價切上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리부터 앞으로의 美國의 通商壓力을 걱정하는 것은, 1986年 들어 對美貿易黑字가 큰 폭으로 늘어 10月까지 59億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年末까지는 70億달러가 넘을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美商務省에 따르면 1986年 들어 8月末까지 對美貿易黑字를 낸 國家中 우리나라는 前年의 8위에서 5위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對美貿易黑字增加率로는 同期間中 60.4%로서 1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 강화될 美國의 通商壓力에 대응할 다각적인 方案을 摸索해야만 할 것이다.

13) 通商關稅法 301條는 業界의 요구 없이도 행정부가 對象을 選定, 自體調査하여 通商相對國이 美國의 企業에 不公正한 差別을 하였다는 調査結果가 나오면, 美國이 相對國의 同一品目 뿐만 아니라 相對國의 어떤 品目の 對美수출에 대해서도 임의로 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다.

14) 對韓GSP惠澤을 정지하려고 하는 63個品目들은 一般機械, 電氣機器, 輸送機器 등의 機械類, 완구, 악기류, 보석, 미용제품, 낚시, 스포츠용품 등 雜貨類와 목재필프제품, 화학제품, 金屬製品 등 대부분 中小企業製品들로 이 品目들의 1985年 對美輸出額은 7億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 品目들의 GSP惠澤이 정지될 경우 對美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3. 外債問題

1985年末 현재 우리나라의 總外債는 467億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表17 參照).

〈表 17〉 18개 主要外債國의 債務現況(1985年末) (單位: 億달러)

| 國 家 | 外 債 | 國 家 | 外 債 | 國 家 | 外 債 |
|--------|-------|-----------|-----|----------|-------|
| 브 라 질 | 1,073 | 유 고 | 196 | 코 스타 리 카 | 42 |
| 멕시코 | 990 | 나 이지 리 아 | 193 | 볼 리 비 아 | 40 |
| 아 르헨티나 | 990 | 모 로 코 | 140 | 우 루 과 이 | 36 |
| 韓 國 | 467 | 페 루 | 134 | 자 마 이 카 | 34 |
| 베 네수엘라 | 336 | 콜 롬 비 아 | 113 | 합 계 | 4,926 |
| 필 리 핀 | 248 | 에 쿠 아 도 로 | 85 | | |
| 칠 레 | 210 | 아이보리코스트 | 80 | | |

資料: The World Bank.

1985年末 현재 純外債 규모는 總外債中 外換保有額, 延拂輸出債權 등 對外資産 112億달러를 공제한 355億달러이다. 그러나 純外債의 증가속도는 1980年 이후 계속 純化되고 있는 추세이다(表18參照).

〈表 18〉 外債推移 (單位: 億달러)

|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總 外 債 | 203 | 272 | 324 | 371 | 404 | 431 | 467 |
| 對 外 資 産 | 63 | 75 | 80 | 88 | 95 | 101 | 112 |
| 純 外 債 | 140 | 196 | 245 | 283 | 309 | 329 | 355 |
| 純外債增加率 | 46.7 | 40.3 | 24.6 | 15.7 | 9.1 | 6.7 | 7.8 |

資料 經濟企劃院

그동안 이처럼 外債가 累積된 것은 1962年 이후 工業化에 필요한 資本에 비해 낮은 國內貯蓄水準, 즉 經濟成長에 필요한 投資水準에 비해 國內貯蓄水準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1962~84年間 우리 경제는 年平均 8.3%의 成長을 하여 同期間中 國內貯蓄率은 24% 水準으로 總投資率 29% 水準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國內貯蓄率의 낮은 水準은 그동안 계속된 심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負의 實質金利 등으로 貯蓄增大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970年代 후반 정부의 重化學工業化過程에서 非效率의인 重複·過剩投資와 급속한 重化學工業化 推進으로 인한 資本財

수입의 격증 등도 外債 증가를 초래하였다. 1980年 이후에는 原油價의 急騰¹⁵⁾과 國際金利의 上昇¹⁶⁾이 外債를 加重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5年 下半年 이후 油價下落, 國際金利下落과 더불어 달러貨弱勢 등으로 우리 경제는 國際收支黑字를 크게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外債가 줄어들고 있다.

英國系 經濟誌인 banker(The Banker)誌도 우리 경제의 向後 5年間 年間 수출목표 伸張率 11% 달성 가능성, 海外借入의 강력한 억제와 IMF권유에 따른 短期債務借入의 억제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外債伸張率은 크게 鈍化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남이 뭐라고 하든 外債는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다.

V. 對 策

과거 우리 경제는 光復 후의 혼란과 6·25의 폐허에서 일어나 美國 등의 援助에 힘입어 값싼 勞動力을 바탕으로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自動車를 만들어 美國大陸을 누비고 美國議會 사절단이 來韓하여 市場開放을 요청할 정도로 괄목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光復 후 19年만인 지난 1964年 처음으로 輸出實績이 1億달러를 넘어섰고, 13年 후인 1977년에는 100億달러를 수출할 수 있었고, 그 후 계속 成長하여 1986년에는 하루에 거의 1億달러씩 수출할 만큼 急伸張하였다. 이와 같은 趨勢라면 1988, 1989년에는 올림픽과 더불어 500億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986年은 우리 경제가 高度成長, 物價安定과 國際收支黑字를 동시에 이룩한 新紀元의 한 해였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問題도 크게 表出시켰던 한 해였다. 1986年の 우리 경제는 1970年代에 이어 제2의 수출붐을 맞아, 恩貸強勢에 따른 對日수입 가격의 騰貴에도 불구하고 美國으로 수출하는 商品の 部品과 原資材를 日本에서 수입하는 比重이 높기 때문에 對美수출이 증가할수록 對日수입이 증가하여 對日貿易赤字幅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問題인 對日貿易逆調, 對美貿易黑字로 特化되고 있는 美·日 偏重構造를 是正하기 위한 對策이 필요하다.

對日貿易逆調가 深化되자 商工部는 뒤늦게나마 對日貿易逆調改善 5個年 計劃을 마련하여 1987年부터 施行하려고 하고 있다. 이 計劃의 主된 內容은 1991년까지 對日貿易赤字를 15~20億달러 규모로 축소하기 위하여, 機械類·部品·素材를 國産化하고 輸入先을 轉換하여 同期間中 145.9億달러의

15) 1979年 第2次 石油波動으로 1978年 배럴당 13달러 하던 油價가 1981년에는 36달러 水準까지 急騰하여 우리 경제의 原油輸入額은 1978年 22億달러에서 1981년에는 65億달러로 급증하였다.

16) LIBOR(런던銀行間 預金金利) 基準으로 國際金利는 1978年 8.8% 水準에서 1981년에는 16.8% 水準까지 急騰하여 우리 경제의 利子支給負擔은 1978年 9億달러 미만에서 1981년에는 35億달러 水準으로 크게 늘어났다.

17) 産業研究院, (1986. 6. 7) 「産業經濟情報」.

對日수입을 節減하고 對日수출을 同期間中 年平均 19.2%씩 크게 늘리고 이를 위해 通商交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計劃에 대해 1986年 11月 24, 25日 兩日間 서울에서 열린 韓日貿易會談에서 日本側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우리의 對日逆調改善 5箇年 計劃과 輸入先 多邊化 政策에 대해 오히려 GATT의 自由貿易原理에 違背된 不公正貿易이라고 억측을 부렸다.

그 후 1986年 12月 5, 6日 兩日間 동경에서 열린 韓日定期閣僚會議에서는 우리나라의 對日수출 증대를 위해 1987年 4月 日本이 GSP를 改編할 때 對韓할당이 확대되도록 협조하며, 1987年 對韓 部品開發協力團을 派韓하며, 機械·電子·自動車 등의 部品에 대한 合作投資, 技術支援, 購買擴大 등을 통한 水平分業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會議처럼 總論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各論에 대해서는 아직도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日本側의 誠意에 못지 않게 對日逆調를 是正하겠다는 우리의 노력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對日貿易逆調를 改善하기 위한 강력한 對策의 마련이 艱요하다.

첫째, 輸入先을 多邊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美國, 유럽으로의 輸入先轉換은, 美國과 유럽地域國家들이 대부분 日本에 대해 貿易逆調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國家와의 對韓貿易不均衡에 따른 무역마찰을 줄이고 交易을 확대하는데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1985年 이 國家들의 對日貿易赤字는 美國이 497億달러, 西獨이 44億달러, 英國이 40億달러, 프랑스가 18億달러, 네덜란드가 12億달러, 벨기에가 8億달러, 아일랜드가 2億달러 등으로 各國의 經濟問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EC는 우리나라를 經濟協力同伴者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輸入先轉換이 가능한 機械類, 電子製品, 化學製品 등의 좋은 輸入先이고 우리의 對EC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技術協力과 現地投資¹⁸⁾ 확대에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日本만이 공급할 수 있는 品目은 價貨強勢를 이유로 가격을 마구 올리거나, 공급이 不足한 品目은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熾포가 심한 실정으로 對日依存이 상대적으로 높은 機械類, 電子製品, 纖維類 등은 國産化가 절실히 요구된다. 電子部品の 경우 全體部品 수입中 對日수입 比重이 1982年 47.3%, 1983年 50.1%, 1984年 49.2%, 1985年 51.0%로 계속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輸入依存度 특히 對日依存度 때문에 250달러짜리 컬러 TV를 수출하는 경우 外貨稼得率이 日本은 88%로서 220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64%인 160달러에 불과하고, 300달러짜리 VCR을 수출할 경우 日本의 外貨稼得率이 88%인 264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56%인 168달러 밖에 안된다는 사실 또한 部品國産化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國産化政策이란 對外指向的 成長政策과 兩立할 수 있도록 基本方向이 摸索되어야 한다.

18) 現地投資는 輸入規制를 피할 수 있고 現地の 生産者團體에 加入하므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輸入規制의 움직임을 事前에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實例로 三星電子가 포르투갈에 컬러 TV工場을 稼動하고 있고 英國에 現地工場을 建設할 예정이고, 金星社가 西獨에 컬러 TV, VTR工場을 稼動하였고, 大宇電子가 프랑스에 現地工場 設立을 검토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美國投資 뿐 아니라 유럽投資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國產化政策이 과거처럼 保護을 통한 育成이라는 소극적인 輸入代替로 推進되어서는 非效率 및 低能率의 폐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國產化推進을 위한 基本方向은 對外指向의 政策基調下에서 對日수입의 규모가 크며 對日수입의 輸出彈力性이 큰 品目들을 우선 國產化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國產化 對象品目에 대한 支援은 그 규모나 期間을 최소화시키고, 技術移轉의 對日偏重에서 벗어나 美國, 유럽 등으로의 技術移轉 多邊化와 技術協力 확대도 적극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開發과 동시에 國內外市場에서 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 品目들이 우선 國產化되어야 할 것이다.¹⁹⁾

특히 國產化가 제일 시급한 部門인 機械類의 國產化 促進을 위해서는 國內 需要業體들이 애써 개발한 國產機械를 외면하고 外國產機械를 選好하는 경향을 줄이고, 國產機械의 수요증대를 위한 國產機械購入資金의 金利水準, 融資期間, 담보감정비율 등의 조건을 輸入機械보다 유리하게 改善하고 同一人 融資限度의 철폐와 與信管理對象에서의 제외 등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세제, 部品開發과 輸出環境變化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中小企業의 育成이 요구된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育成은 雇傭增大와 所得分配改善은 물론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를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中小企業을 輸出産業으로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開放化推進에 따라 競爭力이 강한 海外기업들과 競爭할 수 있는 中堅輸出기업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對策이 요구된다.

먼저 企業新設과 貿易業의 要件을 대폭 簡素化 및 緩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落後된 技術水準을 높이기 위해 專門化體制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施設의 落後와 규모의 零細性에 따른 非經濟性을 극복하기 위해 中小企業들의 共同體인 中小企業團地 혹은 組合 등을 中心으로 施設의 共同利用, 共同利用施設의 集團의 造成, 共同購買 등이 요구된다. 中小企業의 領域도, 우리 경제의 比較優位構造에 맞도록 機械, 自動車, 電子 등 重化學工業의 部品分野로 유도하고, 比較優位가 상실되고 있는 單純勞動集約的인 品目分野는 점차 高級品目으로의 轉換 혹은 後發國에의 直接投資 進出로 유도하는 再調整이 필요하다. 그리고 業種에 따라서는 特定 先進國의 기업과 提携하여 共同으로 自國市場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제3國으로의 進出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熟練勞動集約的 産業分野의 경우, 日本기업이 美國기업에 비해 技術人力의 賃金單位當 勞動生産性이 높아 競爭力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技術人力과 美國의 技術과 資本이 결합한다면 상당한 部門들에서 日本기업과 競爭할 수 있는 競爭力基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提携를 美國 뿐만 아니라 英國, 西獨, 프랑스 등 유럽諸國들과도 확대시켜 나가면, 對日輸入依存과 對日技術依存에서 벗어나서 市場擴大와 先進技術의 흡수 등에 효과적일 것이다.²⁰⁾

그리고 先進國의 輸入規制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對策으로는 輸入規制가 發動되기 前에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特定地域으로의 소나기식 수출과 出血뎀핑수출을 止揚하고 輸出過當 競爭을 방지하는 등 輸出秩序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19) 李相鎬, (1986. 5) “國產化推進政策 基本方向”, 「全經聯」, 全國經濟人聯合會, pp.19~21.

20) 李鍾允, (1986. 5) “開放經濟의 進展과 中小企業의 對應”, 「企銀調查月報」, 中小企業銀行, pp.9~12.

長期的으로는 輸出과 輸入先의 多邊化를 통하여 國家別 貿易不均衡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싸구려商品 혹은 模倣商品이라는 우리 商品의 이미지를 改善하기 위해서 技術開發 및 革新에 의한 品質의 高級化와 中小企業과 專門中堅輸出企業을 통한 高附加價値의 少量多品種 수출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産業構造의 調整이 꾸준히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市場開放要求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經濟發展段階가 비슷한 國家들의 市場開放水準에 맞추어 市場開放 즉 輸入自由化를 推進하되, 通商外交와 多者間貿易協商 등을 통해 輸入自由化 品目과 時期를 伸縮的으로 調整함으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交易國이며 최대 貿易黑字國인 美國은 對韓市場開放과 關稅引下 要求, 通商關稅法 301條 적용, GSP적용 축소 등의 保護主義 壓力을 제일 강하게 加重시키고 있는데, 對美通商은 우리 경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美國의 保護主義 강화에 대한 특별한 對策이 요구된다.

먼저 美國이 衡平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通商外交와 로비活動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美國이 우리나라를 제2의 日本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GNP는 日本의 그것의 6% 밖에 안되고, 對美貿易黑字가 증가되고 있지만 언제 감소될 지 모르는 형편이고, 貿易外去來와 軍장비 및 방위용 무기구입비 등을 합하면 오히려 赤字가 된다는 사실과 日本은 對美貿易黑字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세계 최대의 債權國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對美貿易이 1980年 3億달러, 1981年 4億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고 1982年 이후 黑字로 되어 1982年 黑字가 3億달러로 1980年代 초까지만 해도 대체로 均衡을 유지해 왔지만, 1983年 이후 黑字幅이 확대되어 1983年 30億달러, 1984年 36億달러, 1985年 43億 달러로 증가하는 趨勢이나 日本에 비하면 매우 적고(表19參照) 세계 4위의 債務國이면서도 世界 交易에서 日本보다 더 開放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衡平을 잃은 處事라고 하겠다.

<表 19> 韓·日의 對美貿易收支推移 (單位: 億달러)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韓 國 | -3 | -4 | 3 | 20 | 36 | 43 |
| 日 本 | 122 | 181 | 190 | 217 | 368 | 497 |

資料 : 韓國銀行

日本關稅協會, 「外國貿易概況」

그리고 恩貨強勢·달려貨弱勢의 효과가 美國의 예상과는 달리 日本에게만 有利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韓日間 經濟關係가 매우 구조적이라는 사실로 보아 美國이 開放을 요구하는 品目과 서비스 分野 및 知的 所有權까지도 開放될 경우 美國商品보다 日本商品이 먼저 들어와 日本이 先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위적인 원貨 平價切上은 이제 막 國際收支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輸出競爭力을

크게 低下시켜, 國際收支를 악화시키고, 外債償還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1986年 6月에 來韓했던 IMF로 조사단도 우리 상품의 輸出競爭力을 위해서 현재의 換率水準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바도 있다.²¹⁾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通貨平價切上壓力의 표적이 되고 있는 臺灣의 경우는 300億달러 이상의 外換保有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60億달러의 外債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美國의 對韓要求들이 근본적으로 美國産業의 競爭力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美國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깊이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美國의 對韓要求에 대한 對策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 對策으로 美國이 요구하는 農産物中 輸入額이 별로 크지 않은 品目の 輸入開放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美國의 對韓開放壓力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對美黑字에 있다는 사실이므로, 이들 品目の 開放으로 美國의 開放壓力을 中和시킬 수 있으면 모르지만 輸入額이 별로 크지 않으므로 對美黑字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開放壓力을 加重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대해선 致命的인 타격을 줄 것은 自明한 일이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對策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對美交易을 縮小均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美國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部品과 原資材의 상당부분이 日本에서 수입되므로 對美貿易黑字는 對日貿易赤字와 直結된다고 하겠다. 즉 對日貿易逆調深化와 美國의 保護貿易主義 강화의 문제는 서로 連繫되어 있으므로 그 對策 또한 連繫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對日수입의 상당부분을 對美수입으로 필히 轉換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熟練勞動集約的 産業部門의 경우 對日技術依存에서 벗어나 先進 美國의 技術을 흡수하고 對日輸入依存에서 벗어나 日本기업들과 競爭하기 위해서 美國의 先進技術·資本과 우리나라의 技術人力이 결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美國 혹은 유럽, 日本의 三角貿易體制 및 連繫性을 分析하여 그에 대한 各 部門別 對策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外債節減을 위해서는 첫째 輸入構造를 改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輸入先이 多邊化되어야 한다. 輸入先 多邊化는 수입의 質的 水準을 높여 주고, 輸入條件이 改善될 수 있고, 輸出先 多邊化도 促進시켜 준다. 그리고 輸入額이 많은 原料와 資源에 대해서는 開發輸入을 促進해야 할 것이다.

둘째 機械類·部品 및 素材를 國産化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엔貨強勢에도 불구하고 對日輸入額이 급증하고 있는 즉 對日수입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品目を 우선 國産化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의 수출이라 할 수 있는 節約을 해야 할 것이다. 節約을 통한 貯蓄增大로 總投資率 水準보다 높게 國內貯蓄率을 提高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合理的인 소비생활로 消費健全化를 이룩해야 한다.

이와 같은 對策과 더불어 國際收支의 전망이 확고하지 않다면 지금의 經常收支黑字를 더욱 더 많이 外債償還에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對策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産業構造調整과 함께 최소한의 效率的인 金融, 稅制, 行政支援을

21) 韓圭稷, (1986. 9) "通貨平價切上壓力과 우리의 對應", 「조흥경제」, 조흥은행, pp.8~9.

통하여 기업들의 輸入先轉換과 國産化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정부의 對策에 부응하여 不利한 與件을 무릅쓰고라도 對日偏重에서 벗어나 輸入先을 多邊化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國産化를 推進하고 새로운 輸出市場도 開拓해야만 할 것이다. 家計도 우리 경제의 自立基盤의 구축을 위해 消費自制로 外債節減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 기업, 家計가 合心·노력하여 모든 對外與件이 不利하게 전개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를 효과적으로 자체 흡수할만큼의 저력있는 産業體質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Summary>

Current Problem of Korean Economy and Suggestions of Policies for Korean Economy

Yong-kyung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economy and to suggest policies for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hieve the attainment an advanced economy.

The exter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so-called "three lows" such as low crude oil prices, low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and the low value of the dollar, are favorable to the Korean economy.

However, there exist numerous restrictive aspects such as trade frictions creat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protectionist measures, pressures from foreign debt, market opening request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the heavy dependence on Japan for machinery such as parts and semi-finished goods.

Thanks to the "three lows", the nation's commodity exports will likely cross the mark of \$34 billion worth in 1986 and the nation will see the trade surplus of more than \$4 billion by the end of 1986, the first such black-ink figure in the Korea's trade history. In particular, such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as auto, electronics and machinery have led the way in the export drive. As a result of increased commodity exports spurred by the "three lows", the nation's current account surplus enables our country to reduce its short-term foreign debt and bolster foreign credit.

However, the exports to the U. S. and Japan accounted for more than 50% of total exports.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is likely to reach \$5.4 billion in 1986, compared with a \$3 billion deficit in 1985. This snowballing trade deficit with Japan is attributed to ever-increasing imports of Japanese parts and raw materials for good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duce the snowballing trade deficit with Japan, we have to seek to switch imports sources from Japan, to localize the parts and materials of export products which are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from Japan, and to expand export to Japan.

On the other hand, the trade surplus with the U. S. is estimated to hit the \$7 billion mark by the end of 1986. Figures relat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say Korea ranked fifth, after Japan, Canada, West Germany, and Taiwan, among those countries which garnered the biggest trade surplus with the U. S. between January and August in 1986. However, Korea showed the highest surplus increase rate(60.4%). These factors combine to make Korea vulnerable to bilateral trade fric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1985, 43. 3% of Korea's exports to the U. S. are subject ot restrictions of one sort of another.

The ratio is exceedingly high when compared with 29.5% for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32.0% for Japan.

The U. S. suggested stricter import restrictions on Korean textiles, footwear, machine tools, etc, by likening her own trade deficit to the Korean surplus. In addition, the U. S. pushed it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and trademarks,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and a call to appreciate the value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 S. dollar.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U. S. trade deficit is not Korea's problem but the U. S. problem. As recently as 1981, the U. S. had a trade surplus with Korea. Only in the past four years has the trade balance been in Korea's favor. And even these surpluses have been relatively small. In 1985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 S. was \$4.3 billion, which is one twelfth that of Japan and one third that of Taiwan. Furthermore, if we include such items of invisible trade, the purchase of military hardware and the purchase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equipment by Korean constructors operating overseas, the surplus dwindles to a negligible level. And the premature opening of our markets allied to our exceptionally high military expenditures and huge foreign debt could be detrimental to the Korean economy which is now striving for self-sufficiency.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fric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will have to switch import sources from Japan to the United States and combine the U. S. capital and technology with Korean human resources which in the long run outpaces the Japanese competitiveness on international markets. Furthermore, Korea will have to make an indepth study of how to forge closer links with the new U. S. senators and opinion leaders.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snowballing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overcome the economic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above all during the period of favorable economic circumstances in and outside the country we have to seek to intensify the structure of our economy and to be ready for economic conditions in and outside the country by all means of technology innovation, quality enhancement, productivity improvement, expedition of import substitution and cultivation of small and medium firms, etc.